

오늘 나로호 발사 항우연 발사체계사업단장 박정주씨

“작년 발사 실패 후 국민들 격려에 이 악물고 준비”



“하루하루가 지난 1년보다 길게 느껴집니다. 지난해 나로호 발사가 실패한 경험 때문에 무척 부담되고 긴장되지만 매우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로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끝내겠다는 마음 뿐입니다.”

9일 발사되는 우리나라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를 현장에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정주(50)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발사체 체계사업 단장은 성공을 다짐했다.

“속소 부족 연구원들 민박 하기도”

박 단장은 새벽 5시엔 일어나 작업을 시작한다. 그는 “우주센터의 숙소가 부족해 일부 연구원들은 민박집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며 “1년째 주말을 빼고는 우주센터에서 살다시피 한 연구원들도 있다. 연구원 200여 명의 노력이 있었기에 나로호가 발사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패하면 끝이라는 극단적인 각오로 지난 7

년간 나로호 발사를 준비했음에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죄인의 심정이었지만 발사 실패 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오히려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는 것을 보며 다시 이를 악물고 뚝뚝.”

나로호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2차 발사가 실시되지만 성공은 말처럼 간단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온도, 대기 등과 완전히 다른 우주 환경에서 1%의 차질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발사체를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차 발사 때 문제가 된 페어링도 지상 시험에서는 100% 성공했지만, 우주에서는 방진이나 압력 문제를 일으켰었다. 이런 어려움은 우주 선진국들도 겪은 것이지만 우주 개발에 첫발을 내디딘 우리나라로서는 모든 것이 미개척 분야의 새로운 환경이다.

박 단장은 나로호 발사는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 개발의 첫 단추를 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발사체 개발의 전반적인 체계 기술을 확보하고 발사체 부품을 상당 부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면 아니라 나로우주센터라는 발사 기술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항후 나로호의 후속 모델인 한국형 발사체(KSLV-II)에 들어가는 대형 액체추진기관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하면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발사체 자력 기술 보유국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사체 부품 상당부분 국산화 성공

서울 출신인 박 단장은 지난 1982년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로켓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1993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설립되고 과학로켓 1호를 설계·발사했던 우주개발 초창기부터 현재 나로호 개발과 발사에 참여한 만큼 한국 로켓개발 역사와 함께해 온 셈이다.

박 단장은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몇 년째 못간 휴가를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 싶다”며 “은 국민의 염원이 나로호에 전져서 성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

한국농어촌지사 재해대비 정신재무장 결의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원도지사(지시장 윤충현)는 최근 지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 및 재해대비 정신재무장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화폐전시회



조선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수관)은 ‘2010 국제학술대회(18·19일)’에 맞춰 치과대학 1층 로비에서 6월 한 달 동안 화폐전시회를 갖는다. <조선대 치대 제공>

동아병원 인재양성 후원금 전달



동아병원(대표원장 정근호)은 개원 15주년을 맞아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이흥렬(오른쪽에서 두번째)씨를 초청, ‘즐거움 기부문화’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인재양성 후원금을 전달했다. <동아병원 제공>

송기진 광주은행장 국군함평병원 방문



송기진(왼쪽 첫번째) 광주은행장과 ‘광은 리더스클럽’ 김창남(7세번째) 중앙회장은 지난 6일 제55회 현충일을 맞아 국군함평병원을 방문, 김두성 병원장에게 각각 위문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홍남부두 철수’ 美 영웅 증손자의 ‘한국사랑’

목포 영흥중 원어민 교사 벤 포니씨

증조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기억을 가슴에 품고 한국 사랑을 이어가는 원어민 교사가 화제다. 주인공은 60년 전 한국전쟁 당시 홍남부두 철수 때 수많은 피난민 목숨을 구하는데 큰 공을 세운 에드워드 포니(Forney) 대령의 증손자 벤 포니(Ben Forney·24)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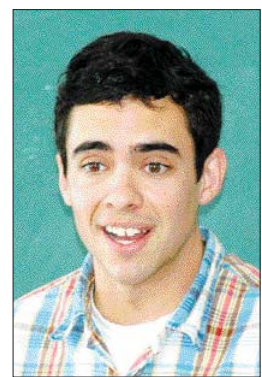
목포 영흥중학교 원어민 교사로 지난해 8월 부임한 포니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한·미교육위원단에 원어민 교사 지원을 해 한국에 왔다. 한국 지원 동기를 묻자 포니씨는 “연수 프로그램도 좋았지만, 할아버지 때문에 왔다”고 서투른 한국어로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다.

“할아버지가 전쟁 철수 작전 때 수많은 피난민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에게

듣고 난 후로 한국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운이 좋게도 원어민 교사로 올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할아버지의 용감한 행동에 자부심을 느끼고 한국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는 “같은 미국인이지만 몸 안의 피는 물론 모든 것이 한국인이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포니씨의 증조부 포니 대령은 부두 관리와 상이륙(上離陸) 작전의 전문가다.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고(故) 현봉화(의학) 박사가 홍남부두에 풀려난 “피난민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포니 대령은 최고 책임자인 알몬드 소장을 설득해 화물을 줄여 피난민을 태우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0년 12월 초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홍남부



두까지 쫓겨가 미국 10군단 사령부가 철수 명령을 내렸고 홍남부두에는 피난민 10만명 정도가 몰려와 있었다.

포니 대령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 3년간 해병대 고문으로 해병대 교육을 담당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고 1965년 사망했다. 포니씨는 한국에 1년 더 머물며 한국어 공부를 더 하고, 많은 것을 배워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도 드러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c@



전남대학교 김윤수(왼쪽) 총장이 8일 국제회의동 2층 융복합홀에서 고(故) 김남주시인의 부인인 박광숙(오른쪽)씨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다./김진수기자 jeans@

전남대, 故 김남주시인에 명예 졸업장

전남대학교가 8일 융복합홀에서 개최된 개교 58주년 기념식에서 고(故) 김남주시인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다. 고인이 대학에 입학한 지 41년 만이다.

졸업장은 고인의 부인 박광숙씨가 받았다. 김윤수 총장은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고인의 치열한 삶에 뒤늦게나마 조그만 위로의 표시가 되었으면 한다”고 명예 졸업장 수여 배경을 밝혔다.

또 전남대 총동창회는 고인을 모교의 명예를 빛낸 동문으로 선정, 응봉인 명예대상을 수여했다.

1946년 해남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4년 광주일고에 입학했으나 입시위주의 교육에 반발해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거쳐 1969년 전남대 영어영문학

과 입학했다. 이후 1972년 12월 최초의 반유신 지하신문인 ‘함성’을 제작·배포하고, 이듬해 2월 전국적인 반유신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지하신문 ‘고발’을 제작·배포해 구속되면서 대학에서 제적됐다.

고인은 1974년 계간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진혼가’, ‘갯더미’ 등 8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으며 1975년 전남대 앞에 사회과학서점 ‘카프카’를 개설해 광주사회문화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또 고인은 생전에 발표한 470여 편의 시 가운데 300여 편을 옥중에서 써 ‘옥중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은 1994년 2월 13일 폐장암으로 별세했으며 유족으로는 부인 박광숙 여사와 아들 토일씨가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졸업 김염지씨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

조선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한 김염지(22)씨가 문학과지성사가 주관하는 ‘제10회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 소설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돼지우리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일필휘지



로 써야겠지’ 분명한 데도 그것이 작품의 결함이 되기 보다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오는 작품이다”는 평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

내방

▲유태명(광주 동구청장)씨 ▲최형식(담양군수 당선자)씨 ▲박철홍(전남도의원 당선자)씨 ▲지병문(前 국회의원)씨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강신숙씨 막내 이상신군 공재웅(삼성화재 공재웅 대리점대표)·정호관씨 막내 정은양=12일(토) 오후 2시30분 서울삼일교회 B관 1층(소예배실)

▲허영철(해남부군수)·김정순씨 장남 진호군(전남개발공사) 최성근(전 농업 강진군 지부)·이만심씨 막내 화영(현대자동차)양=12일(토) 오전 11시30분 조선컨벤션웨딩홀 3층(컨벤션홀)

▲이삼욱(세무사)·명옥기씨 장남 승훈군 김기근·고영란씨 장녀 지인양=12일(토) 오후 1시 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이영순씨 차남 영호군 김인숙씨 차녀 수진양=12일(토) 오후 1시 30분 조선컨벤션 1층(영빈관)

▲주옥근(전 광주시 건설국장)·

이정애씨 차남 성호(코엠커머셜 사장)군 임재익(서울 남향주택(주) 사장)·인재순씨 장녀 희정양=13일(일) 낮 12시50분 광주에별루선 웨딩컨벤션 3층(컨벤션홀)

▲김관도·우대순씨 차남 태우군 진용남씨 차녀 나유진양=13일(일) 낮 12시20분 조선컨벤션 3층(컨벤션홀)

▲고재우·채정남씨 차남 현국군 김광선·이순우씨 장녀 진경양=13일(일) 오후 1시20분 웨딩의전당 금호 30층(아도니스홀)

동창·동문회

▲조대부고 제 29회 졸업 3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승태) ‘홀 커밍 데이’=12일(토) 오후 6시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5층(연회장). 010-3635-0488.

▲광주보건대학 사회복지과동문

(회장 김운기) 월례회=18일(금) 오후 7시 동구 계림동 계림수산회작관장. 016-611-2858.

항우회

▲재광발전 항우회(회장 최재승) =2010년 상반기 모임=11일(금) 오후 6시30분 광주 히딩크 관광호텔 8층. 062-227-8500.

종친회

▲동래정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정한영) 정기총회=10일(목) 오전 11시 무등고시학원. 011-9615-8567.

알림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월~

금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일반 면접 상담, 위기 가족문제, 자녀문제, 자살 등 상담. 062-223-9191.

▲시주 쉽게 배울 분 개인·단체 촬영=광주시 북구 우산동 자담역리학회. 062-263-0208.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위기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 병원비·생필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j-dongfc.familynet.or.kr/)

▲발관리 전문 상담=무겁고 피곤한 발, 각질, 무좀, 갈라진 발, 붓는 발 등. 광주시 북구 풍향동 백림약국 탐정형외과 예 배내수. 062-266-6657.

모집

▲디지털카메라 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재봉틀 흥패션 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전 10~11시5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동구문화센터 겨울학기 문화강좌 회원모집=홈페이지 www.macj.kr 또는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김순덕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12시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김진경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2시~3시3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색소폰 교육회원 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6~8시 동구 문화센터. 062-225-8700.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모집=담양겨우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광주FC 축구회원 모집=자영업, 직장인 20~50대 참여 환영, 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인조잔디장. 010-6495-5728.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 모집=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모집=담양겨우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광주 시사 영어 전문학원 고용보험 수강 모집=FREE TIME 제도, 답안제 관리, 매달 모의 토익 시험 실시, 소수 정예, 주말반 가능. 062-223-0582.

▲거동 불편한 어르신 모집=65

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참·더부러 재가노인 복지센터(062-266-6321~2)

▲김태준씨 별세 영제·영근(한국 PD교육원 사무처장)·순덕·명자·복희·미경씨 부친상=발인 9일(수) 상무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600-7400.

마음까지 편안함 - 금호칼레식장
☎ 227-4000

故 박귀례님 (94/87세)
주/부/모 김영철/손미숙
김영현/이미숙
외 고손자

☎ 061-101호
발인 06월 09일
장지 영락당

故 배양수님 (남/78세)
주/부/모 배영철/김금희
외재 배은옥/지광준
배현아/천경림

☎ 061-401호
발인 06월 09일
장지 영락당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주차장 - 정갈한 음식!

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참·더부러 재가노인 복지센터(062-266-6321~2)

부음

▲김태준씨 별세 영제·영근(한국 PD교육원 사무처장)·순덕·명자·복희·미경씨 부친상=발인 9일(수) 상무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600-7400.